

사루쿠로 돌아보는 후카호리 사적군



1 후카호리 패총 유적 자료관

후카호리 유적은 나가사키 반도와 니시소노기(西彼杵) 반도의 서해안쪽에 많이 보이는 사구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이다.



1 후카호리 패총 유적

후카호리가와 강 하구에 발달한 사구 유적에서는 조문(縄文) 시대 전기부터 근세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.



2 엔조지 절(円成寺)의 범종

이 범종은 1743년, 엔조지 절의 제6대 주지가 후카호리의 주민들에게 기부를 받아, 후지와라 쿠니히사(藤原国久)에게 주조시킨 것이다.
(시지정 유형문화재)



3 후카호리(深堀) 신사

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고탄샤(幸天社)라는 이름이었으나, 187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. 신사 입구의 도리의 기둥에는 후카호리 창설의 유래가 새겨져 있다.



4 십인열사의 묘

1700년 나가사키 싸움 소동(長崎喧嘩騒動)으로 인해 할복한 12명과 고토로 유배된 9명의 묘비이다. 이 소동은 1701년에 일어난 아코 사건(赤穂浪士討ち入り)의 모델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.



5 후카호리 나베시마(深堀鍋島) 가문 묘지

에도시대 사가 번의 중신이었던 후카호리 나베시마 일가의 묘지. 나가사키시에서 유일한 구 번주(旧藩主)급 묘지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.
(시지정사적)



6 보다이지 절(菩提寺)

보다이지 절은 후카호리 요시나카(深堀能仲)가 사가미의 미우라 마을 카나야(相模国三浦庄金谷村)에 있던 약사여래 등을 물려받아 건립한 곳이라고 한다.



7 고칸(五官)의 묘

1637년에 세상을 떠난 하야시 가문의 고 고칸(林吳公五官)의 묘. 그는 명나라의 가사(袈裟: 승려가 입는 법의) 희사하였으며, 사후에는 이 묘 부근의 토지를 기부했다.



8 후카호리 영주의 저택 옛터와 용나무

진야(陣屋)란 후카호리 영주가 살던 저택을 말하며, 오야시키(御屋敷)라고도 불렀다. 이곳 아래 해변가에는 성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, 뒤편에 있는 용나무는 시지정 천연기념물이다.



9 가톨릭 후카호리 성당

1960년, 시부야(渋谷師)가 저택 옛터에 세운 가옥을 신도들에게 개방한 것이 이 성당의 시작이었습니다. 1972년에 정식으로 소성당이 되었다.



10 히구치(樋口) 저택의 정문 및 돌담

92.4m에 이르는 이 돌담(石塚:석빙)은 무사 저택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사키의 중요한 유적이다.
(나가사키시 경관 중요 건조물·나가사키현 마을 만들기 경관 자산)



11 다와라이시 성(俵石城) 옛터

조야마(城山) 산 정상에 영주 후카호리의 저택으로 동서 쪽에 약 300m, 남북 쪽에 약 100m의 곡선 형태의 석루가 세워져 있다.